

2010년 5월 15일 가족과 함께 진부면 수향리로 여행을 갔었다. 숙박지에 짐을 풀고 손주들과 정원에 서 놀고 있는데 오후 6시쯤 나무위에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 촬영하였다. 아직 횡성에서 촬영을 못해 많이 아쉽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책에 신기로 했다.

흰배지빠귀는 몸길이 약 23cm이다. 여름에는 암수 함께 살고 이동할 때에는 많은 수가 무리 생활을 하지만 겨울에는 단독일 때가 많다. 양쪽 다리를 교대로 움직여 땅위를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되지빠귀보다 경계심이 강하다. 숲속 나무꼭대기에 앉아서 되지빠귀와 비슷한 소리로 운다. 봄과 가을에 한반도를 지나가는 흔한 나그네새이자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번식하는 여름새이고, 남해 섬과 제주도 및 울릉도 등지에서는 겨울을 나기도 한다. 무주 구천동과 지리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6월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장미과 및 포도과 나무의 열매와 식물의 씨를 먹거나 낙엽 밑에 숨어 있는 딱정벌레, 지렁이, 거미류, 다지류 따위를 잡아먹는다. 둥지는 땅 위에서 높지 않은 나뭇가지 위에 나무뿌리, 마른풀, 솔잎 등을 이용해서 밥그릇 모양으로 만든다. 알을 낳는 시기는 6월이다. 알은 옅은 녹색 바탕에 붉은 갈색과 잿빛 쥐색의 얼룩점이 있으며, 4~5개 낳는다. 수명은 2~3년이다.



2-노래하는 흰배지빠귀 성조 2010년 5월 15일 평창군 진부면 수향리

55. 노랑지빠귀 - *Turdus naumanni* Temminck, 1820

〈나그네새 노랑지빠귀〉

1-먹이 활동하는 노랑지빠귀 성조
2020년 3월 14일 횡성읍 북천리





2-먹이 활동하는 노랑지빠귀 성조
2020년 3월 14일 황성읍 복천리



몸길이 약 24cm이다. 수컷의 겨울깃은 윗면이 잿빛이 도는 갈색이고 머리 위에 짙은 세로무늬가 있다. 노랑지빠귀는 주로 겨울철 중부지역에서는 흔한 겨울철새이며, 흔하게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10월 초순부터 도래해 통과하거나 월동하며, 5월 초순까지 관찰된다. 산이나 숲, 농경지, 정원, 개활지(앞이 확 트인 넓은 땅) 등에서 곤충 또는 식물의 씨앗, 열매 따위를 먹는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개똥지빠귀 무리와 섞여 생활하기도 하지만 그 수가 적다. 먹이를 찾거나 먹을 때는 울음 소리로 무리에게 알리며, 주변을 살핀 후 먹이를 먹는다.

시베리아 중부와 동남부에서 번식하는데, 약 3~5개 정도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 직박구리과

56. 직박구리-*Hypsipetes amaurotis* Temminck, 1830

〈겨울에도 들리는 새소리 직박구리〉



1-직박구리 성조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2, 3-직박구리 성조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3-직박구리 성조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4-먹이 활동하는 직박구리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약 27.5cm이다. 몸 전체가 잿빛을 띤 어두운 갈색인데 머리는 파란빛이 도는 회색이고 귀 근처의 밤색 얼룩무늬가 두드러진다.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지저귀는데, 울음소리가 음악적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겨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새이다.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며, 땅 위에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 여름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고, 겨울에는 보통 평지로 내려와 마을 부근 나무에서 3~6마리씩 무리를 짓는다. 식물의 열매를 매우 좋아하며, 봄에는 식물의 꽃을 따먹고, 여름에는 곤충을 잡아먹는다. 날 때 날개를 펼치며 날다가 날개를 접고 파도 모양으로 난다. 시끄럽게 울어대며, 무리지어 까치를 공격하기도 한다. 가을철 과수농가의 배, 사과, 감 등에 피해를 주기도 해 과수원 유해조류로 알려져 있다.



6-먹이 활동하는 직박구리 성조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7-직박구리 성조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나뭇가지와 잎이 많은 나무에 작은 나뭇가지, 식물의 줄기, 인간이 버린 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한배에 낳은 알의 수는 4~5개이며, 암컷이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13~14일이며, 부화 후 10~11일이 지나면 둥지를 떠난다.

갓 부화한 새끼에게는 영양가가 높은 달팽이, 매미, 개구리, 나방 등 곤충 및 양서류 등을 먹인다. 직박구리가 섭취한 다양한 식물의 씨앗은 동일한 방법으로 종자 발아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직박구리가 열매를 섭취한 후 최소 300m 범위까지 이동하여 종자를 퍼뜨림으로써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종의 식물들끼리의 경쟁을 줄이고 새로운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 산림보전에 보탬이 된다고 한다.

L. 찌르레기과

57. 찌르레기 - *Sturnus cineraceus* Temminck, 1835

〈모차르트가 애지중지한 새 찌르레기〉



1-유조의 먹이를 물고 있는 찌르레기 성조 2011년 5월 2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유조의 먹이를 물고 있는 찌르레기 성조
2019년 5월 24일 공근면 수백리



3-유조의 먹이를 물고 있는 찌르레기 성조
2019년 5월 24일 공근면 수백리

몸길이 약 24cm이다. 3월에 중국 남부에서 왔다가 10월에 날아가는 여름 철새이다. 도시공원·정원·농경지·구릉·산기슭 등 도처에서 번식하며 떼를 지어 다닌다.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살고 그 밖의 시기에는 대개 무리지어 산다. 큰 나무 위나 대나무 숲을 잠자리로 하며 저녁때와 아침 일찍 먹이를 찾으러 떠나기 전에 시끄럽게 운다.

논과 밭에 가로질러 놓인 전선에 여러 마리가 한 줄로 앉아 쉰다. 찌르레기의 번식 기간은 3~7월 사이다. 특히 4월에서 5월 사이 짝짓기를 많이 하며, 한 배에 4~9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알을 품고, 품은 지 10일 정도 지나면 새끼가 나온다. 둥우리를 떠날 때까지의 육추 기간은 21일이다. 잡식성으로 곤충류와 개구리 및 나무의 종자 따위를 먹고 산다. 보호조이다. 울음소리는 흔히 알려진 대로 "찌르 찌르"라고 울기도 하지만, 번식기에는 "큐리 큐리리리"라고 운다고 한다.

인간의 말과 음의 높낮이 등 소리를 흉내 낼 수 있는 특이한 새이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모차르트가 애완동물로 애지중지하던 새이다. 모차르트는 돈을 쓰면 가계부에 적었는데, 1784년 5월 27일 오스트리아 빈의 거리에서 애완 찌르레기 한 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새를 산 이유가 이 새가 모차르트 앞에서 그해 초 그가 세상에 내놓은 피아노협주곡 17번 3악장의 테마를 노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차르트는 가계부에 이 새가 노래한 소절을 악보로 적고, "아름다웠다"는 감탄사까지 썼다고 한다. 수명은 약 7년이다.



4-유조의 먹이를 물고 있는 찌르레기 성조 2019년 5월 31일 공근면 수백리



5-논에서 유조에게 먹일 벌레를 잡는 찌르레기 2019년 5월 24일 공근면 수백리

M. 참새과

58. 발종다리-*Anthus rubescens* Tunstall, 1771

〈겨울철새 발종다리〉



1-발종다리 성조
2010년 9월 17일 갑천면 황성담

황성담에서 땅바닥에 앉아있는 길이가 16cm 쯤 되어보이는 발종다리를 보았다. 상태가 앓종고 불쌍해 보였다. 한국에서는 흔히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10월 중순부터 도래해 월동하고 4월 하순까지 관찰된다. 번식기에는 바위가 흩어져 있는 아고산대(식물의 수직 분포대. 해발 1,500~2,500미터의 지대)와 고산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저지대로 이동한다.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휴경지, 초지, 해안가, 개울가 등지를 거닐며 곤충류, 식물의 종자를 먹는다. 작은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찾는 경우가 많다.

산란기는 6~7월이며, 풀밭의 오목한 곳에 둥지를 만들고 주위에 있는 풀로 덮고 있을 때가 잦다. 둥지의 내부에는 가늘고 부드러운 풀이나 동물의 털 등을 깐다. 알은 옅은 회색 또는 푸른색 바탕에 어두운 자색이나 회갈색 점이 흩어져 있는 것과 옅은 갈색 바탕에 흐릿한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으며 보통 4~5개 낳는다. 수명은 약 5년이다.

59. 참새-*Passer montanus* Linnaeus, 1758

〈내고기 한 점은 쇠고기 열 점과도 안 바꾼다는 참새〉



1-먹이 활동하는 참새 성조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2, 3-먹이 활동하는 참새 성조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추운 겨울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화롯불에 구워주시던 참새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생생한 새다. 옛날 농촌에서 겨울이 되면 초가지붕 밑에서 잠을 자는 참새를 손을 넣어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 어른들은 화롯불에 구워 자식들에게 먹이곤 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참새 쫓느라 논에서 살아야 했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참새’라는 이름이 ‘진짜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참새의 ‘참’자가 한자로 참 진(眞)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지만, 실제로 ‘참’은 ‘작다’는 의미의 ‘좁’의 센말이다. ‘좁’이 ‘참’으로 변해 참새가 된 것이다. 도시와 시골의 어디에서나 번식하며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참새는 몸길이는 약 14cm이다. 번식기에는 암수가 짝지어 생활하나, 가을과 겨울철에는 무리 생활을 한다. 여름에는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어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가을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4-먹이 활동하는 참새 성조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5-참새 유조 2017년 7월 15일 공근면 상동리

참새는 많은 수가 집단을 이루어 번식하지만, 둥지는 서로 떨어진 곳에 짓는다. 대개 인가나 건물에 암수가 함께 둥지를 짓는다. 처마 밑이나 벽의 틈, 때로는 돌담의 틈, 나뭇구멍, 목재나 장작을 쌓아 올린 틈 사이에도 둥지가 있고, 드물게는 제비집을 빼앗거나 땅에서 12m나 되는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다. 2-7월이나 3-6월에 대개 사람이 사는 집이나 건물에 둥지를 틀고 가장 많이 산란하며, 4-8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은 지 12-14일이면 부화하고 암수가 함께 새끼를 돌본다. 새끼는 부화 후 약 14일 후에 둥지를 떠나며, 약 10일간 어미로부터 먹이를 공급 받는다.

새끼를 키우는 어미새는 둥지에서 200m 이상 멀리 날아가지 않으며, 하루에 600회 이상 먹이를 나르고 새끼가 자랄수록 그 횟수는 줄어든다. 참새의 수명은 약 5~6년이다.

N.할미새과

60. 알락할미새-Motacilla alba Linnaeus, 1758

〈여름새 중 가장먼저 찾아오는 알락할미새〉



1-유조에게 줄 먹이를 물고 있는 알락할미새 성조
2009년 5월 18일 공근면 수백리



2-알락할미새의 먹이 활동
2019년 4월 2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약 20cm 정도의 크기이다. 한국에서는 여름새 중 가장 먼저 찾아와 3월 초순이면 냇가나 하천, 농경지와 구릉 등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나 쉽게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로 남부 지역에서 매우 적은 수가 월동한다. 인가 주변, 농경지, 하천, 모래밭에서 서식하며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며 먹이를 찾는다. 번식을 마친 무리는 둥지를 떠난 어린 새를 포함하여 모두 한곳에 모여드는데, 포플러, 해송, 배나무 등의 나뭇가지나 과수원 등지에 모여 집단으로 잠을 잔다

둥지는 냇가의 바위틈, 인가의 건물 틈 사이에 만든다. 둥지는 가늘고 부드러운 풀이나 나무뿌리 그리고 동물의 털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4~5월에 한배에서 4~5(간혹 6)개의 알을 낳아 12일간 알을 품고 새끼는 13~14일간 키운다. 새끼에게는 곤충의 유충과 성충 및 거미류 등과 기타 동물성 먹이를 먹이며 성조도 곤충을 주로 먹는다.



3-알락할미새 성조 2019년 7월 1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알락할미새 유조 2019년 7월 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5, 6-알락할미새 유조
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61. 노랑할미새-*Motacilla cinerea* Tunstall, 1771

<꼬리를 위 아래로 많이 흔드는 노랑할미새>



1-노랑할미새 성조 수컷
2019년 4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노랑할미새 성조 수컷
2019년 4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노랑할미새 성조 수컷
2019년 4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노랑할미새 성조 암컷
2019년 4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5-노랑할미새 성조 암컷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약 20cm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4~10월에 찾아온다. 꼬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특이한 동작이 있다. 강, 계류, 저수지 가까이 서식한다. 곤충, 애벌레, 거미, 식물의 씨앗을 먹이로 하는 잡식성 조류이다.

번식 시기는 4~8월이며, 둥지는 돌과 나무뿌리 사이의 경사면에 있는, 물 흐름이 센 곳 주변이나 강가에 위치해있다. 한배에 알을 4~6개 낳는다. 주로 암컷이 포란하며 포란기간은 약 13일, 육추기간은 13~14일이다. 이들은 야생에서 최대 8년을 산다.

62. 검은등할미새-*Motacilla grandis* Sharpe, 1885

〈자신의 모습을 시기하는 나르시스즘에 걸린 검은등할미새〉



1-먹이 활동하는 검은등할미새 성조(좌)
2019년 5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검은등할미새 성조(우)
2019년 4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먹이 활동하는 검은등할미새 성조(하)
2019년 5월 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먹이 활동하는 검은등할미새 성조
2010년 3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23cm 정도이며, 산간계류에서 서식하는 텃새다. 국내에서는 전국의 하천에서 번식하는 텃새이지만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는 드물다.

자갈과 바위가 풍부한 평지와 산악지역에 위치한 계곡, 하천, 강에서 육상곤충, 수서곤충, 작은 어류를 잡아먹는다. 분주히 걸어 다니며 땅 위 또는 물속에서 먹이를 구하거나 날아다니는 곤충을 공중에서 잡아먹기도 한다. 한 쌍 또는 적은 수가 서로 거리를 두고 먹이를 찾는다. 비교적 빠른 3월 초에 번식에 들어간다(연 2회 번식한다). 둥지는 물가의 벼랑, 언덕의 파인 곳, 물가의 풀밭 속 땅 위, 돌담 사이 등에 식물의 줄기, 마른 잎, 나무껍질 등을 이용해서 만든다. 한배에 알을 4~6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약 13일이며, 육추기간은 약 13일이다. 이동하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인다.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번식이 끝나고 2-3마리의 어린 새를 동반한 작은 무리를 형성한다. 휴식을 취할 때는 끊임없이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다른 할미새류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공격을 한다.

영국의 어느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왜냐하면 번식기를 맞은 수컷 할미새가 사이드 미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경쟁자로 착각해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수컷 할미새의 엄청난 공격에 사이드 미러는 새털이 잔뜩 묻거나 심지어는 깨지기도 했다. 할미새의 이러한 행동은 번식 시기 때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5-번식 활동하는 검은등할미새 한쌍 2011년 5월 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6-검은등할미새의 성조와 유조 2011년 4월 2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O.휘파람새과

63-개개비-*Acrocephalus arundinaceus* Linnaeus, 1758

〈개개개개 소리내는 개개비〉



1-개개비 성조(좌)
2020년 6월 9일 황성읍 남산리

2-개개비 성조(우)
2020년 6월 9일 황성읍 남산리

3-개개비 성조(하)
2020년 6월 9일 황성읍 남산리



4-개개비 성조
2020년 6월 9일 황성읍 남산리

개개비비 하고 운다 해서 개개비라고 이름 붙여졌다. 17.5~18cm의 소형 조류이다. 5월경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도래하는 흔한 여름철새이자 통과철새이다. 봄과 가을에 흔히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며 갈대나 물가 초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몽골 중부, 아무르 지역, 중국 동북부,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서 월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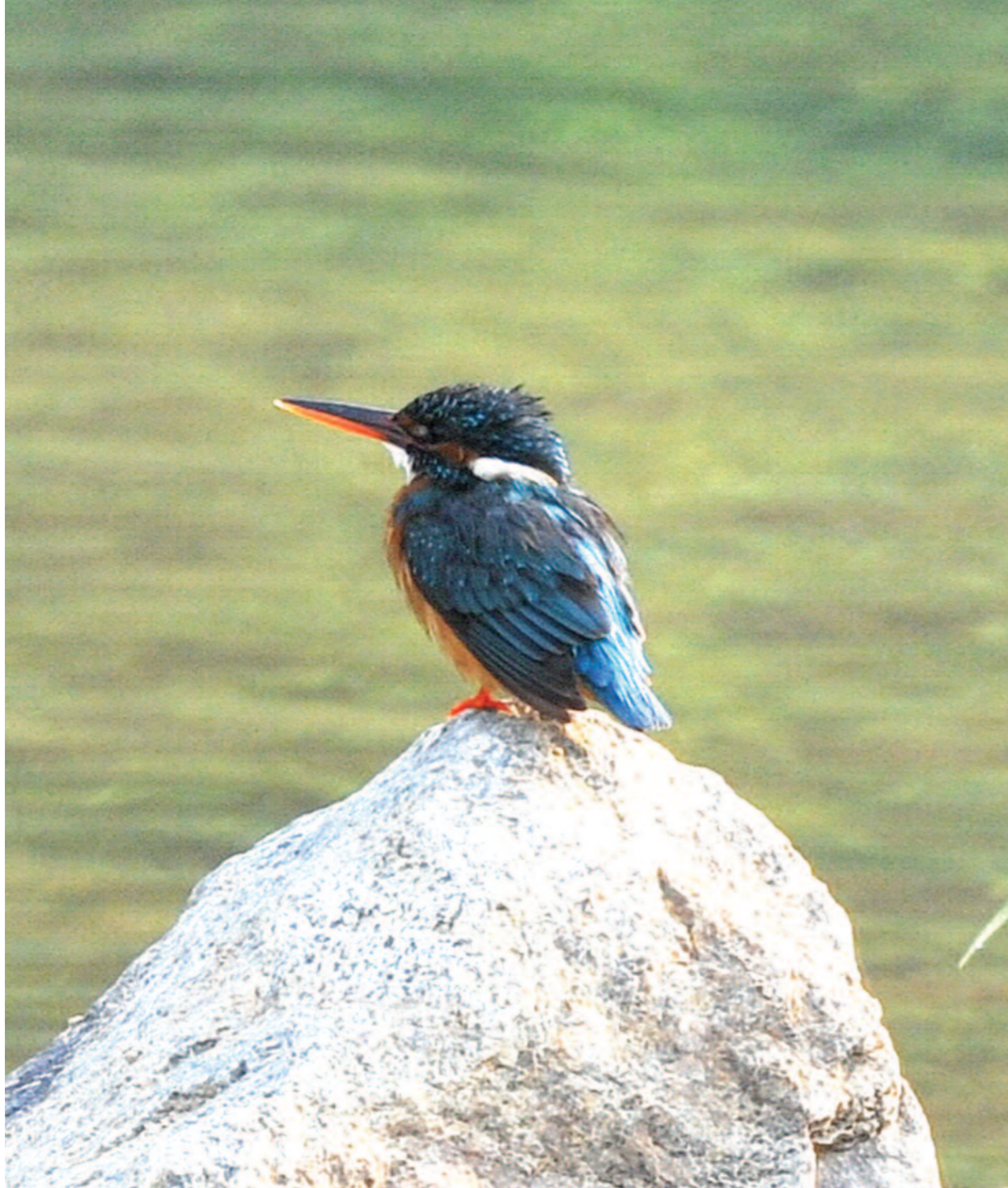
잡식성으로 먹이는 메뚜기, 파리, 모기 같은 곤충류 같은 동물성과 나무 열매이다. 천적은 맹금류, 여우, 뱀, 인간 등이 있다. 서식지는 갈대밭이지만 갈대밭이 줄고 하천이 오염되면서 수가 줄고 있다. 번식 등지는 주로 물가의 갈대밭이며 수면에서 약 0.8~2m 높이의 갈대 줄기 몇 가닥을 엮어서 그 위에 짓는다. 이외에 대밭, 관목에도 둥지를 튼다. 번식 기간은 5~8월이며 알의 개수는 4~6개이다. 포란 기간은 약 14~15일이며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시기는 약 12일이다.

파. 파랑새목

A. 물총새과

64. 물총새-Alcedo atthis Linnaeus, 1758

〈물고기 잡는 호랑이 물총새〉



1-먹이를 찾는 물총새 성조 2019년 5월 11일 황성읍 섬강



2-먹이를 찾는 물총새 성조 2019년 5월 7일(상), 2020년 1월 10일(하) 황성읍 섬강



3-물먹이를 찾는 물총새 성조
2019년 5월 21일 황성읍 섬강



4-먹이를 찾는 물총새 성조
2019년 7월 18일 황성읍 섬강

물총새의 몸길이는 약 17cm인데 ‘물고기 잡는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새이지만 일부는 월동하며 텃새 화 되고 있다. 저수지 주변 독이나 개울가에 번식하는 흔한 새였으나 한 때 농약을 마구 뿌려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기도 하였다. 중부 이남에서는 일부가 겨울을 나는 보기 드문 겨울새이기도 하다. 하천이나 강가에 단독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한다. 물총새는 먹이를 잡기위해서 연못가에 나뭇가지나 바위 등지에 망대(望臺)를 가지고 있다. 수면에서 1~1.5m의 높이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가 수면에 물고기가 지나가면 물속으로 뛰어들어 큰 부리로 잡아챈다. 먹이의 크기는 2~5cm 가량의 작은 물고기인데 잡은 물고기는 나뭇가지나 바위에 부딪혀 기절시킨 후 먹는다. 뼈가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머리부터 삼킨다. 주로 민물고기를 잡아먹지만 양서류·곤충·갑각류 따위도 잡아먹는다.

번식기에 수컷은 물고기를 잡아 기절시킨 후 부리에 물고 춤을 추며, 암컷에게 전달해주는 구애 행동을 한다. 3월 상순~8월 상순에 물가 흙벼랑이나 언덕에 구멍을 파서 둥지를 틀고 물고기 뼈를 토해내서 알자리를 마련한다. 한배에 4~7개의 둥글고 흰 알을 낳는데,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0일이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이 물고기를 잡아서 전해준다. 새끼는 부화 후 약 14일 후에 둥지를 떠나며, 약 10일간 어미로부터 먹이를 공급 받는다. 수명은 약 5~10년이다.

B. 파랑새과

65. 파랑새 - *Eurystomus orientalis* Linnaeus, 1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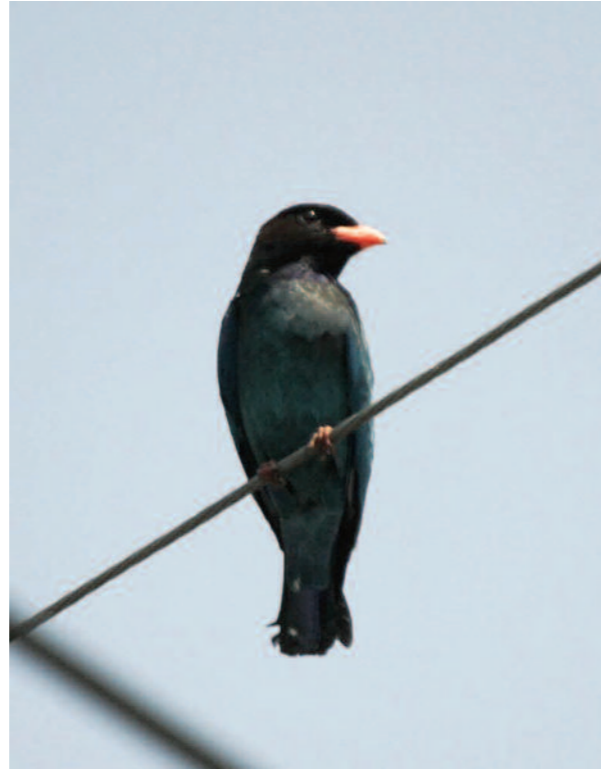
〈전설의 파랑새〉



1-높은 곳에 앉아 먹이를 찾는 파랑새 성조
2016년 5월 22일 황성읍 읍하리



2-높은 곳에 앉아 먹이를 찾는 파랑새 성조
2019년 8월 5일 황성읍 삼일공원



3-높은 곳에 앉아 먹이를 찾는 파랑새 성조
2009년 5월 14일 황성읍 삼일공원

몸길이 29.5cm이다.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여름새이다. 주로 큰 고목이 드문드문 있는 침엽수림이나 혼효림 또는 공원이나 농경지 부근에서 살며 둥지는 까치, 올빼미류, 까막딱다구리 등 다른 조류가 만든 둥지를 빼앗거나, 번식을 마친 옛 둥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부리가 단단해서 전주에 구멍을 뚫고 둥지를 틀기도 한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데, 나무꼭대기 가까이 앉아 있다가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 먹는다.

날 때는 날개의 흰색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눈에 띈다. 5월경에 찾아온 새는 초기에 둥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격렬하게 싸운다.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걸쳐 3~5개의 알을 낳는다. 매일 1개씩 낳아 22~23일 동안 알을 품고, 새끼는 약 20일 동안 암수가 함께 기른다. 먹이는 딱정벌레·매미·나비 등을 즐겨 먹는다.



4-파랑새가 나는 모습 2019년 8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5-높은 곳에 앉아 먹이를 찾는 파랑새 성조 2019년 8월 5일 황성읍 삼일공원

C. 후투티과

66. 후투티-*Upupa epops* Linnaeus, 1758

<우관이 예쁜 후투티>



1-넷가에서 먹이 활동하는 후투티 성조
2011년 3월 11일 황성읍 전천

몸길이 약 28cm, 날개길이 15cm로 깃털은 검정색과 흰색의 넓은 줄무늬가 있는 날개와 꼬지, 그리고 검정색의 긴 꼬지 끝을 제외하고는 주황색을 띤 갈색이다.

머리의 길고 아름다운 깃털은 우관을 형성하며 경계를 하거나 놀랐을 때는 곧게 선다. 우관의 깃털 끝은 검고 흰 띠가 있으며, 부리는 길고 밑으로 조금 굽어있다. 먹이로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으며 성장기에는 땅강아지나 지렁이 등을 먹는다. 그러나 똥 안을 뒤져서 먹이를 찾는 경우가 있어 몸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편이다. 중부 이북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여름새이다. 구릉이나 야산의 나무숲에서 번식하며 때로는 인가의 지붕이나 처마 밑에서도 번식한다.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살고 주로 땅 위에서 생활한다. 4~6월에 5~8개의 알을 낳아 암컷 혼자 16~19일 동안 품는다. 새끼는 부화한 지 20~27일 만에 둥지를 떠난다.

하. 황새목 백로과

67. 왜가리-*Ardea cinerea* Linnaeus, 1758

〈천연기념물 248호 왜가리〉



1-모여서 휴식하는 왜가리 성조 2020년 1월 30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먹이를 찾는 왜가리 성조 2019년 3월 19일 황성읍 전천



3-물고기를 향해 돌진하는 왜가리
2011년 5월 28일 황성읍 전천



5-왜가리가 날아오르는 모습 2006년 6월 18일 황성읍 전천



4-물고기를 잡은 왜가리 2011년 5월 23일 황성읍 전천





6-왜가리의 비행 모습
2009년 5월 28일 황성읍 섬강



강변 산책길을 걸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가 왜가리이다. 황성에서 볼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로 몸길이 약 94~97cm로 중대백로보다 크고 대백로와 비슷하거나 작다. 부리와 다리는 계절에 따라 노란색이나 분홍색을 띤다. 번식기에는 눈앞부터 부리의 대부분이 선홍색을 띠며, 다리도 붉은색으로 변한다.

주로 물고기나 개구리, 뱀 등을 먹고 살며 때때로 오리나 비둘기 같은 조류, 자라 등 거북류, 소형 육상 포유류도 먹는데 쥐는 물론이고 심지어 토끼나 족제비까지 잡아먹는다. 논이 많은 시골에 가면 꽤나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도시에서도 강변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원래는 철새였으나 현재는 완전히 텃새가 되었다.



7-번식지에서 휴식하는 왜가리 성조
2019년 5월 20일 원주시 호저면 주암2리

하천 및 강 등에서 멀지 않은 침엽수와 활엽수의 교목림에 백로류와 함께 집단으로 번식한다.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한배에서 3~5개(보통 4개)의 알을 낳아 25~28일간 알을 품고, 50~55일간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운다. 처음에는 반(半)소화된 먹이를 새끼에게 먹이지만 점차 둥지 위에서 어미가 토해 먹인다. 새끼는 둥지를 떠날 정도로 자라면 이웃하여 있는 나뭇가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날개 깃을 하기도 한다. 9~10월경에 번식지를 떠난다. 수명 약 25년이다.

황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마을 서쪽에 있는 영산과 북쪽의 압산에 있다. 영산의 정상에는 200~300년 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숲이 우거져 있으며, 압산에는 산등성이에 약 90년 된 소나무 1그루와 그 밖에 떡갈나무, 상수리나무가 있다. 약 20년 전까지는 대부분 왜가리 집단이 번식하였으나, 점차 왜가리는 감소되고 현재는 중대백로가 번식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중의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일대는 지난 70~80년대 해마다 3천여마리의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했으나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최근에는 300여마리가 찾고 있다.



8-왜가리 성조와 유조 2019년 5월 13일 원주시 호저면 주암2리



68. 황로-*Bubulcus ibis* Linnaeus, 1758

〈소등에서 먹이 활동하는 황로〉



1-번식지에서 휴식하는 황로 성조 2011년 5월 28일 횡성읍 입석리



2-번식지에서 휴식하는 황로 성조
2010년 6월 24일 황성읍 입석리



3-넷가에서 먹이를 찾는 황로
2009년 5월 22일 황성읍 섬강

부리와 머리, 목이 노란색을 띠어 황로라고 부른다. 몸길이 약 50cm로 백로류 중에서 소형에 속한다. 물가, 논, 초지를 배회하며 물고기, 수서곤충, 개구리 등을 먹는다. 3월경에 다른 백로류와 함께 무리를 이루어 번식하고, 9월 말경이나 10월경에 번식지를 떠나 동남아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름철새다. 보통 목장의 초원에서 가축의 뒤를 따라다니며 가축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나 풀 속에서 튀어나오는 곤충 등을 잡아먹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쉽다.

산란기는 5월 중순에서 7월경으로 키가 큰 소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등에 주변의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둥지를 만들며 한 번에 평균 3~4개의 알을 낳고 22~26일간 포란한다. 알 품기 및 새끼 돌보는 암수가 같이 한다.



4-번식지로 집지를 나뭇가지를 나르는 황로 2010년 6월 24일 황성읍 입석리



5-황로가 나는 모습
2010년 6월 24일 황성읍 입석리



6-논에서 먹이 활동하는 황로
2009년 5월 22일 황성읍 모평리

69. 검은댕기해오라기-*Butorides striata* Linnaeus, 1758

〈기다림의 고수 검은댕기해오라기〉



2-하천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검은댕기해오라기 성조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



3-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검은뿔기해오라기 성조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

4-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검은뿔기해오라기 성조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



5-검은맹기해오라기 유조 2012년 6월 11일 황성읍 입석리

‘검은맹기해오라비’라고도 하는데 몸길이는 약 52cm이고 머리꼭대기와 뒷머리는 녹색 광택이 나는 검은색으로, 길이가 6-7cm인 가는 버들잎 모양의 깃털이 있어 이름이 생긴 모양이다. 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 섬·자바 섬 등지에서 월동하고, 4월 중순에 도래하여 9월 하순까지 관찰되는 전국에 걸쳐 번식하는 흔한 여름철새이다. 목을 움츠린 채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날 때도 목을 'Z'자 형태로 구부리지만 다리는 뒤로 뻗는다. 논, 개울가, 야산을 낀 못, 웅덩이,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하천 등지에 서식하는데, 보통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활동한다. 산림 주변의 물이 흐르는 개울, 하천의 보에서 장시간 움직임 없이 꼼짝 않고 노려보다가 소형 어류, 미꾸라지 등을 뾰족한 부리로 잡아내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먹이는 작은 물고기·개구리·갑각류·수생곤충·울챙이 등이다.

둥지는 10m 내외 높이의 나무 위에 마른 나뭇가지로 허술하게 접시 모양으로 짓는다. 한배에 청록색 알을 4~5개 낳으며 21~25일간 포란한다. 다른 백로처럼 무리를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번식하고, 단독으로 먹이를 찾는다. 수명은 약 10~15년이다.

70. 중대백로-*Ardea modesta* Linnaeus, 1758

〈황성군의 상징 군조 백로〉



1-번식지에서 휴식하는 중대백로 성조
2011년 5월 28일 황성읍 입석리



2-물고기 사냥하는 중대백로 성조
2019년 5월 13일 원주시 호저면



3-집지을 나뭇가지를 나르는 중대백로
2005년 4월 20일 황성읍 입석리



4-중대백로의 비행 모습 2019년 5월 13일 원주시 호저면



5-포란하는 중대백로 어미 2019년 5월 20일 원주시 호저면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해 온 풍속화 속 대표 새로 몸길이 약 90cm이다. 여름철 번식기의 어깨깃에는 가늘고 긴 장식깃이 있으나 겨울깃에는 없다. 또 여름철의 부리는 검고 부리 시작 부위가 녹색이나 겨울철의 부리는 노란색이다. 한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널리 번식하는 흔한 여름새이다. 번식기 이외에는 땅 위에서 생활하고 논, 개울, 하천, 습지 등 물가를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단독 또는 2~3마리에서 7~8마리의 무리가 평지에서 쉽게 눈에 띄는데, 번식이 지나 새끼가 둥지를 떠난 뒤에는 번식지 부근의 논에서 20~30 또는 40~50마리씩 모여 지낸다.



6-유조를 돌보는 중대백로 2019년 6월 4일 원주시 호저면



7-먹이를 기다리는 중대백로 유조 2019년 6월 4일 원주시 호저면



8-어미를 조르는 중대백로 유조 2019년 4월 8일 황성읍 섬강



9-부리가 노란색으로 변한 겨울의 중대백로 2019년 12월 31일 황성읍 전천



10-중대백로 무리 2011년 5월 26일 황성읍 전천

중대백로는 짝짓기를 할 때가 부리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암컷, 수컷 모두 긴 장식깃이 생긴다. 장식깃은 다른 말로 '여름깃' 이라고도 한다. 번식기에 주로 수컷에게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을 말한다. 중대백로는 암수 다 장식깃이 난다. 번식 기간에 구애를 하거나 과시 행동을 할 때 또는 적을 위협할 때 이 깃을 부챗살처럼 활짝 펼쳐 사용한다. 6월 말이 되면 검은 부리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등의 치릿깃도 거의 빠진다. 왜가리, 쇠백로, 황로 등과 섞여 200~300마리에서 500~600 또는 2,000~3,000마리씩 번식한다. 둥지는 소나무, 참나무류의 가지에 죽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든다. 4~6월 하순에 2~4개의 알을 낳아 암수 함께 품고 품은 지 25~26일이면 부화해서 30~42일 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먹이는 물고기를 비롯하여 개구리, 올챙이, 들쥐, 새우, 가재, 수생곤충 따위를 잡아먹는다. 왜가리를 포함한 다른 백로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어린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면 어미는 떨어진 새끼는 돌보지 않는다.



11-백로무리 집단서식지 2020년 5월 17일 원주시 호저면 주산2리

강원도 황성군 압곡리의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제248호로 지정되었다. 수명은 약 10~15년이다.

71. 쇠백로-*Egretta garzetta* Linnaeus, 1766

〈제일 작은 백로 쇠백로〉



1-번식지에서 휴식하는 쇠백로 성조
2011년 5월 28일 황성읍 입석리



2-쇠백로 성조
2011년 5월 26일 황성읍 입석리

몸길이 약 61cm로 백로류 중에서 비교적 체구가 작기 때문에 쇠(소)백로란 이름이 붙여졌다. 먹이로는 작은 어류, 새우류,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1960년대까지 매우 드물었으나 현재는 중대백로만큼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철새이며 일부 개체가 월동한다. 얇은 호수, 논, 개울 등지에서 먹이를 찾으며 먹이 잡는 방법이 다양하다. 얇은 물에서 물고기를 쫓아 빠르게 달리기도 하며, 발로 수면 바닥을 구르며 여기 저기 거닐다 놀라 튀어나오는 먹이를 재빠르게 잡아먹는다. 또한 하천의 자갈밭, 수중보 등지에서 가만히 서있다가 오르내리는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심지어 물고기를 찾아내어 잡아먹기 때문에 백로 중 사냥 기술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백로류의 번식지에서 나무에 둥지를 짓는 위치는 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덩치가 큰 왜가리는 천적이 별로 없어 앞이 트이고, 제일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반면 크기가 작은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등은 천적이거나 다른 백로류에게 밀려 번식지의 제일 낮은 곳의 나무에 둥지를 짓는다. 그래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이다.



3-논에서 먹이 활동하는 쇠백로 성조 2009년 4월 28일 황성읍 모평리

번식기에는 머리 뒤에 2~3개의 기다란 장식 깃털이 생긴다. 둥지 크기는 왜가리 둥지의 1/5 정도로 작다. 한배 산란수는 3~6개이며 22~24일간 포란한다. 새끼는 부화 후 약 25~30일 동안 어미가 먹이를 공급하여 키운다. 3월경에 매년 같은 장소에 찾아와 다른 백로류 등과 무리를 이루어 번식한다. 9월 말경이나 10월경에 번식지를 떠나 남부지방이나 동남아 등지로 이동한다. 북쪽에서 번식한 무리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낸다. 수명은 약 10~15년이다.



4-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쇠백로 성조 2009년 4월 28일 황성읍 섬강



5-어미를 기다리는 쇠백로 유조 2011년 5월 28일 황성읍 입석리

72. 중백로-*Ardea intermedia* Linnaeus, 1758

〈미끼로 먹잇감을 잡는 중백로〉



1-먹이 활동하는 중백로 성조 2005년 4월 20일 황성읍 입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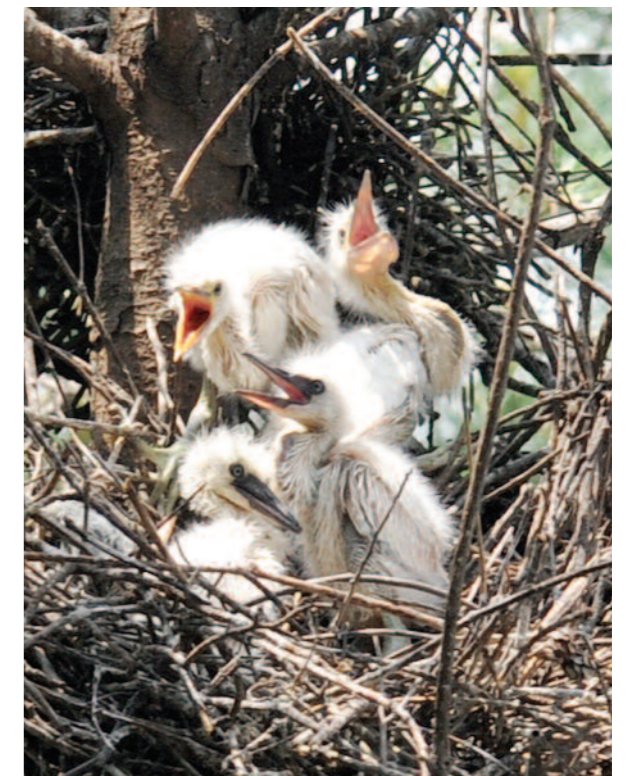
2-휴식하는 중백로 성조
2005년 4월 20일 황성읍 입석리



3-중백로 어미와 유조
2011년 6월 2일 황성읍 입석리



4-다 자란 중백로 유조
2010년 6월 24일 황성읍 입석리



5-어미를 기다리는 중백로 유조
2011년 6월 2일 황성읍 입석리



6-종백로 성조 한 쌍 2005년 4월 20일 황성읍 입석리

몸길이 약 65cm로 비교적 드문 여름철새다. 4월 초순에 도래해 9월 하순까지 관찰된다. 초지 또는 얕은 물에서 천천히 거닐며 물고기, 개구리, 미꾸라지 등을 잡아먹는다. 번식기에는 긴 깃털이 꽂지보다 길다. 매년 3월경에 같은 장소에 찾아와 다른 백로류나 해오라기류와 함께 무리를 이루어 번식하며 주변의 죽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둥지를 만든다. 알 품기 및 새끼 기르기는 암수가 함께 한다. 백로류와 함께 무리지어 집단번식하지만 개체수가 적다. 둥지는 쇠백로보다 약간 크게 만들며 알을 3~4개 낳고 24~27일간 포란한다.

속담에서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속은 희고, 백로는 겉은 희지만 속은 검다.'라는 말은 까마귀는 겉으로는 불길한 존재이지만 속임수는 쓰지 않는 정직함을 뜻하고, 반대로 백로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험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백로나 황새과 새들은 먹잇감을 잡을 때 미끼를 잡아서 먹잇감을 속이는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붙여졌다.

속임수를 써서 사냥을 하며, 미끼로 양서류나 어류 등을 사냥한다. 겉으로 보기엔 희고 깨끗하여 예로부터 청렴한 선비의 상징으로 쓰여 왔으며, 시문이나 화조화에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로 시작하는 시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러운 데 잘만 간다. 진흙으로 된 논바닥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큰 호수가부터 실개천까지 2급수 3급수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물고기와 양서류 등등을 잡아먹는다.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73. 해오라기-Nycticorax nycticorax Linnaeus, 1758

〈밤물까마귀 해오라기〉



1-먹잇감을 기다리는 해오라기 성조
2011년 5월 27일 황성읍 전천



2-번식지에서 휴식하는 해오라기 성조
2019년 5월 11일 원주시 호저면



3-해오라기 유조
2011년 5월 26일 횡성읍 입석리

몸길이는 56~61cm이다. 다리는 짧고 몸은 뚱뚱하며, 목은 평상시에는 S자로 움츠리고 있어서 짧아 보이지만 먹이를 사냥할 때에는 길게 늘인다. 이게 생각보다 길어서 깜짝 놀라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휴식할 때는 한쪽 다리만 세우고 쉰다. 주로 야행성으로 해질녘부터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하여 '밤물까마귀'라는 별명이 있다. 낮에는 칙칙한 숲에 있다가 저녁 때 논이나 개울에서 물고기, 새우, 가재, 개구리, 뱀, 곤충, 쥐를 잡아먹는다. 논, 개울, 하천, 습지 등에서 서식한다. 해오라기는 담수 및 기수 등 다양한 환경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특성이 있어 해오라기가 많이 관찰되는 강가나 하천은 물고기가 풍부한 곳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위해 해오라기의 먹이사냥 행동을 보고 장소를 선택하기도 했다. 번식시기가 되면 눈과 윗부리 사이가 검정색으로 변하고 다리와 발은 분홍빛을 띤다.

소나무, 잣목림 등의 숲의 나뭇가지에 여러 가닥의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어서 접시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둥지 안에는 솔잎 등을 깔다. 산란기는 4-8월이고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3~6개이며, 알은 이틀 간격으로 낳는다.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21~27일이며, 부화 후 25~28일이 지나면 둥지를 떠나는 연습을 한다. 부화 후 40~43일이 지나면 완전히 둥지를 떠난다. 어린 새는 날개 전체가 갈색이며, 흰색 반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배는 베이지색 바탕에 세로로 갈색의 줄무늬가 있다. 종종 백로, 왜가리와 함께 집단 번식을 하기도 한다. 수명은 약 10~15년이다.



4-해오라기 성조와 유조
2011년 5월 27일 횡성읍 전천

Ⅲ. 나가는 말

한상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취미로 찍은 보잘 것 없는 새 사진을 공개하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그동안 새 종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네이버카페(곤충나라 식물나라) 회원님들께 감사하고, 두산백과, 우리나라 텃새(국립중앙과학관), 다음백과 등을 참고하였다.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새를 만날 수 있을 까 기대해 본다.

새는 무리를 짓거나 단독으로 생활하다가도 번식기가 되면 쌍으로 생활하는데, 식물성 먹이를 먹던 새들도 곤충이나 거미 같은 동물성 먹이를 섭취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암수가 협력 하여 새끼를 보호 하며 양육하는데 혼신을 다한다. 또 새끼를 기르는 동안 죽기 전에는 절대로 헤어지는 일도 없다하니 참으로 놀랍다. 하지만 남에게 의탁해 새끼를 기르는 빼꾸기, 짝짓기가 끝나면 모든 육아를 암컷이 한다고 하는 부부금실의 상징 원앙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저 혼자 아름답게 지저귀던 멧새소리, 빛이 반짝이는 듯한 청아한 밀화부리의 울음소리, 새끼를 지키기 위한 딱새의 애절한 몸부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종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새소리를 횡성에서 못들을 때가 오지 않을까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 또 철새가 텃새로 변하고 남쪽에서 살던 새가 횡성에서도 보이는 현상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열대지방의 새들도 횡성에서 볼 날을 상상해 본다.

끝으로 보잘 것 없는 이 책이 나오도록 힘써주신 박순업 횡성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도서 | 한국의 새 123. 서정화, 박종길. 신구문화사. 2010



인 쇄 2020년 11월 일
발행일 2020년 11월 일
발행인 박순업
편저자 한상균
기 획 민준식
발행처 황성문화원 033)343-2271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앞들서3로 6
인쇄처 강원도민일보 033)260-9400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 본 책자는 황성군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